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비교 분석*

송은혜**

언어특수교육원

방명애***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홍점숙

도담인지발달센터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41점 이상을 받은 위험군 청소년 60명과 16점 이하를 받은 비위험군 청소년 61명, 총 121명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 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가 비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중재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정서행동 문제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sseehh1004@naver.com)

*** 교신저자 (kdj-0729@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의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모든 연령군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6.9%이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비율은 2013년보다 0.1%p 상승한 1.8%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2.5%로 2013년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이는 성인 5.8%의 약 2.2배로 연령대별 위험군 중 가장 높다. 학령별로 분석해보면 중학생의 증가폭이 1.3%p로 가장 크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비율도 청소년층에서만 0.7% 증가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011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 독립된 병리인지, 다른 병리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중이지만(Acier & Kern, 2011; Kinget al., 2012),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가 개정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의 Section III에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범주에 인터넷 게임 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중독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정신장애로 심각하게 인식되며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은 쉽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터넷 정보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Ko et al., 2012). 이러한 인터넷 과다사용과 인터넷 중독이라는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동일 외, 2013a; 양재원 외, 2013; Kuss et al., 2014). 인터넷 중독 집단이 나타내는 특성은 표면적으로는 동질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독에 이르는 동기나 과정은 매우 다르다(Sim et al., 2012). 장재홍과 김광현(2009)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연구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반면에 국외 연구는 사이버 관계 중독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Rizzo, Villa, & Crisi, 2015)와 실태조사 연구가 더 많다. Byun 외(2009)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출판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메일이나 웹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가 다양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터넷 과다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Huang, 2010; Oktan, 2011).

한편, 인터넷이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남용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 욕구에 의한 추진요인과 인터넷 매체의 흡입요인을 포함하며(정운태, 박소영, 서용석, 2014),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와 사회환경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로 구분된다(Brus, 2013). 인터넷은 청소년의 생활에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의 하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매체이며(Pawłowska et al., 2015),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장역방, 방명애, 2014). 정보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정병일, 박희서, 2014). 또한 장기간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집중력 문제와 낮은 학업수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1). 특히 인터넷 중독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및 충동조절 문제 등 다른 정신 병리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공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김주경, 2014; Ko et al.,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특성은 자기통제력이 낮고(양재원 외, 2013; Xu, Turel, & Yuan, 2012), 충동성이 높다(함경애, 신지영, 이동훈, 2015; Meerkerk et al., 2010).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안영준, 김자옥, 문경래, 2013; 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고(신준섭, 이충환, 2010)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안권순, 송국범, 이원용, 2013).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충동조절 문제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며 청소년의 심리특성 가운데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의 관련 변인이기도 하다(김지경 외, 2012; Burnay et al., 201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다른 특성은 자아존중감이 낮다(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Laconi, Rodgers, & Chabrol, 2015). 또한 자신을 숨기고 과장하며 현실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감이 결여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 관계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적이다(이중춘, 신성철, 2012). 가상적인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청소년들은 현실관계에 있는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학업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업능력이 낮아진다(김의철 외, 2013; 이주연, 전중설, 2015; Stavropoulos, Alexandraki, & Motti-Stefanidi, 2013).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역기능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부정적 신념과 인터넷 과다의존의 당위성을 높게 나타내며,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양재원 외, 2013).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사고는 대처반응의 부적응을 유발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이정민, 김미리혜, 김정호, 2012).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Ozturk et al., 2013; Weinstein et al., 2015).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우울감(김동일 외, 2013b; 김선우, 김태현, 2011; 전신현, 2012)과 불안감을 느끼며(송아영, 임혜진, 왕정희, 2011), 공격성이 높다(이준기, 최응용, 2011).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특성상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문제행동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오지현, 조미영, 2015) 학업, 학교, 교사,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주석진, 2011).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이지숙, 고기숙,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인터넷 윤리수준도 낮다(김경호, 차은진, 2012). 또한 인터넷 중독은 우울정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전신현, 2012) 자살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기숙, 이지숙, 20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안권순, 송국범, 이원용, 2013; Ko et al., 2012; Ozturk et al.,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관한 중재는 연구되고 있으나(김성범, 2015),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중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문현실, 서경현, 2014). 따라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자기통제력의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 총 1,021명을 편의 군집 표집 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41점 이상을 받은 위험군 청소년 60명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인터넷 중독 척도에서 16점 이하를 받은 비위험군 청소년 61명, 총 12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급별, 및 성별 연구 대상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수

구분	위험군 (n=60)		비위험군 (n=61)		계
	남	여	남	여	
중학생	19	12	11	13	55
고등학생	18	11	14	23	66
계	37	23	25	36	121

2. 연구 도구

1)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

인터넷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등 네 가지 요인이며 총 15개 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이며, 10번과 13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총점의 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증세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보문화연구원(2011)의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38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력 측정 도구

자기통제력 척도는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장기적 만족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 두 가지 요인이며 총 20개 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이며, 즉각적인 만족 영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자아존중감 척도는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또래관련 자아존중감, 가정-부모 관련 자아존중감, 학교-학업관련 자아존중감 등 네 가지 요인이며 총 32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의 범위는 32~1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69, 사회적 자아존중감 .8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83,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72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95, 사회적 자아존중감 .96,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95이고,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8로 나타났다.

4) 정서행동 문제 측정 도구

정서행동 문제 척도는 오경자 외(2010)의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중 중후군 척도의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 연령대에 걸쳐 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시스템(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ASEBA)에 의해 2001년 전반적으로 개편된

미국판 YSR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YSR의 내재화 척도의 하위영역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으로 31문항이고, 외현화 척도의 하위영역은 규칙위반, 공격행동으로 32문항이며, 총 63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3점 척도로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이며, 내재화 척도 총점의 범위는 0~62점이고, 외현화 척도 총점의 범위는 0~64점이다. 원점수와 백분위점수, T점수로 제공되는 평가 결과 중 본 연구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는 T점수 64 이상인 경우 임상 범위에 해당하며, T점수 60 미만은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개정판을 통해 오경자와 김영아(2011)가 밝힌 YSR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내재화 척도 .87, 외현화 척도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내재화 척도 .95, 외현화 척도 .97이고,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7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편의 군집 표집 하였다. 연구자들이 각 학교에 연구 목적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후 설문지는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배포하였다. 학생들의 설문지 작성은 각 학교 학급의 담임교사 지도하에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021부였으나 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는 30부를 제외하고 991부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KS-II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점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44~60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41~43점), 일반 사용자군(15~40점)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포함하여 척도 점수 41점 이상을 받은 학생 60명을 위험군 청소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표본의 크기를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척도 점수 16점 이하를 받은 학생 61명을 비위험군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총 12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의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첫 번째 ~ 세 번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에 대한 네 번째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자기통제력

1) 청소년의 집단 간 자기통제력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집단 간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 분	N	M	SD	t
위험군 청소년	60	36.45	4.65	
비위험군 청소년	61	80.48	4.26	-54.35***
전 체	121	58.65	22.54	

***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36.45)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평균(80.4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4.35, p < .001$).

2)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성별 및 급간별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기통제력 차이

구분	위험군			
	N	M	SD	t
성별	남학생	37	35.57	-1.91
	여학생	23	37.87	
급간	중학생	31	37.97	2.78**
	고등학생	29	34.83	

** $p < .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 간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은 남학생(35.57)이 여학생(37.87)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91$). 반면에,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급간별 자기통제력 척도의 평균은 중학생(37.97) 보다 고등학생(34.83)이 낮았으며,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8, p < .01$).

2. 자아존중감

1) 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청소년의 집단 간 자아존중감 차이

구분	N	M	SD	t
위험군 청소년	60	60.78	3.49	-73.45***
비위험군 청소년	61	123.41	5.62	
전체	121	92.36	31.79	

*** $p < .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60.78)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평균(123.41)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3.45, p < .001$).

2)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성별 및 급간별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구분	위험군			t
	N	M	SD	
성별	남학생	37	59.86	-2.72**
	여학생	23	62.26	
급간	중학생	31	61.97	2.88**
	고등학생	29	59.52	

** $p < .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 간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은 남학생(59.86)이 여학생(62.26)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2, p < .01$).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급간별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은 중학생 (61.97) 보다 고등학생(59.52)이 낮았으며,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88, p < .01$).

3. 정서행동 문제

1) 청소년의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청소년의 집단 간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구분	N	M	SD	t
위험군 청소년	60	75.12	5.52	
비위험군 청소년	61	17.25	5.58	57.32***
전체	121	45.94	29.58	

*** $p < .001$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75.12)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평균(17.2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유의 확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7.32, p < .001$).

2)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성별 및 급간별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과 급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의 차이

구분	위험군				
	N	M	SD	t	
성별	남학생	37	75.68	6.30	1.00
	여학생	23	74.21	3.93	
급간	중학생	31	74.29	4.04	-1.20
	고등학생	29	76.00	6.72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성별 간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은 남학생(75.68)이 여학생(74.21)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00$).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급간별 정서행동 문제 전체 척도의 평균은 중학생(74.29) 보다 고등학생(76.00)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20$).

4.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정서행동 문제
자기통제력	1		
자아존중감	.476**	1	
정서행동 문제	-.321*	-.119	1

* $p < .05$, ** $p < .01$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476으로 유의 확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과 정서행동 문제의 상관계수는 -.321로 유의 확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정서행동 문제의 상관계수는 -.1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및 정서행동 문제를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변인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일반 집단보다 낮았다고 보고한 양재원 외(2013)의 연구 및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고등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안권순, 송국범, 그리고 이원용(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핵심은 충동을 조절하는 문제이다(Billieux & Van der Linden, 2012).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행동적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위험요인이며(김지경 외, 2012; Meerkerk et al., 2010), 충동성에 의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함경애, 신지영, 이동훈, 2015).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중독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자기통제력이므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김의철 외, 2013; 오화정, 김영호, 2015; Xu, Turel, & Yuan, 2012).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은 충동적인 행동 및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며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정병일, 박희서, 2014; Burnay et al., 2015).

둘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낮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이종춘과 신성철(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보다 인터넷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다(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Laconi, Rodgers, & Chabrol, 2015). 현실에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성취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을 통해 현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서적 지지나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인터넷 의존성은 점차 증가된다(소현하, 한유진, 2010; Wong, Yuen, & Li, 2015). 이러한 인터넷 의존성과 과다사용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이주연, 전종철, 2015). 김의철 외(2013)는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라 친구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인터넷 중독 집단은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덜 받으며, 따돌림의 경험은 인터넷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은 현실에서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믿는 역기능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조민자, 2010; Rizzo, Villa, & Crisi, 2015).

셋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가 비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 척도의 평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과 우울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Dong 외(2011)의 연구와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일수록 우울감이 심하고 적대감이 높다고 한 김동일 외(2013b)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간 정서행동 문제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 김동일 외(2013b)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반면에 백승영과 이승영(2014)의 연구에서는 정서행동 문제 임상 위험군의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총 행동 문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김선우, 김태현, 2011),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김정민, 최은서, 2010).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이 청소년의 공격성, 불안, 비행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정서행동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일 외, 2013a; 송아영, 임혜진, 왕정희, 2011; 이준기, 최용용, 2011; 전신현, 2012; Weinstein et al., 2015).

넷째,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정서행동 문제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즉각적인 인터넷 반응에 익숙하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보고한 도금혜와 이지민(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높으며 (Burnay et al., 2015),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적응 상황을 벗어나 즉흥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일탈행동에 가담하기 쉽다(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부정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어 우울감을 형성한다(조민자, 2010; Du, Jiang, & Vance, 2010). 학업적인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 중독 성향은 더 낮다(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이효선과 방명애(2012)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인내와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변인은 정서조절 능력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억제기능과 관련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낮은 정서조절 능력은 높은 수준의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한다(김민희, 김봉석, 최지영, 2015).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관리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기관리 및 자기결정 기술의 중재가 필요하다(이성봉 외, 2014; Wong, Yuen, & Li, 2015).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지과정 왜곡과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인지적 재구조화 및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를 통해 중재할 필요가 있다(Webber & Plotts, 2013).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김성범, 2015).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일반교육과 청소년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예방적 특수교육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특수교육과 다른 학문영역의 연계를 통한 초학문적인 연구의 접근과 융합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김건희 외, 2015).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진단 검사를 통해 특수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진호, 이성용, 차재경, 2015).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내 편의 군집 표집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1명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에 일반화시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가 자기보고식 척도이었으므로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과장하였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와 제한점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표집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표본의 크기를 늘려 청소년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김의철 외, 2013; Kuss et al., 2014)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ADHD,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 문제 등 다른 정신 병리적 증상을 야기하거나 공존하는 정도가 높으므로(김주경, 2014; Ko et al., 2012),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최근 통계에 따르면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장애학생은 11.8%이며 5시간 이상 사용자도 2.0%로 나타났다(이지연, 정은희, 2012).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36.8%가 인터넷 중독 위험을 보이고 그 중 8.0%는 심각한 중독을 보이는 등 높은 인터넷 중독 경향을 나타냈다(박중휘, 이효자, 2005). 그러나 국가수준의 장애인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이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으로 인해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015). 따라서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과 더불어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승훈, 김정수, 2014)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주, 신은경, 김소아 (2015).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심리사회적 발달관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2), 95-144.
- 고기숙, 이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5, 131-156.
- 김건희, 박병도, 허명진, 부소영 (2015). 정서 및 행동장애 학생들의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융합중재에 대한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151-173.
- 김경호,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 김동일, 이윤희, 강민철, 정여주 (2013a). 정신건강 문제와 인터넷 중독: 다층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상담학연구**, 14(1), 285-303.
- 김동일, 이윤희, 김영근, 강민철 (2013b).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상담학연구**, 14(4), 2143-2162.
- 김민희, 김봉석, 최지영 (2015). 주의력, 실행 기능, 정서 조절 능력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537-551.
- 김선우, 김태현 (2011). 가족, 학교, 인터넷 사용 환경요인과 중학생의 인터넷 의존간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25-49.
- 김성범 (2015).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학생의 인터넷 중독 감소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597-626.
-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김정희, 오미선 (2013). 청소년의 사이버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주관적 안녕감과 학업성취도: 인터넷 중독인식집단과 비중독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2), 285-318.
- 김정민, 최은서 (2010).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4(1), 121-135.
- 김주경 (201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딜레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23-34.
- 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 인터넷 중독 성향과 사용유형에 따른 충동성과 플로우 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1041-1057.
- 김진호, 이성용, 차재경 (2015). 정서·행동장애 위험아동에 대한 국내외 실험연구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381-405.
- 남현미,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도금혜, 이지민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공격성간의 관계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59-69.
- 문현실, 서경현 (2014).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해결중심 치료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5), 483-509.

- 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 변화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과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4(5), 2987-3002.
- 박중휘, 이효자 (2005). 시각장애학생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 실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1-24.
- 백승영, 이승희 (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임상위험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207-231.
- 소현하, 한유진 (2010).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대인불안 및 자기통제가 메신저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81-192.
- 송아영, 임혜진, 왕정희 (2011). 일반건강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57-83.
- 안권순, 송국범, 이원용 (2013). 사회적 기술과 자기조절 능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335-365.
- 안영준, 김자옥, 문경래 (2013).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행태와 인터넷 중독증과의 관계.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8(7), 1083-1091.
- 양재원, 조영미, 배주미, 최요한, 김경은 (2013). 군집분석을 통한 중학생 인터넷중독 위험군의 유형 분류. **청소년상담연구**, 21(2), 77-98.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10).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서울: 휴노.
- 오경자, 김영아 (2011).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 오지현, 조미영 (2015).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문제행동 간 관계: 성별에 따른 탄력성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2), 171-194.
- 오화정, 김영호 (2015).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2), 13-25.
- 이성봉, 방명애, 김은경, 박지연 (2014). **정서 및 행동장애** (제2판). 서울: 학지사.
- 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중·고등학생의 학업자신감,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성취도와 인터넷 중독성향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1(2), 349-374.
- 이승훈, 김정수 (2014). 청각장애 학생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실태 연구. **한국게임학회논문지**, 14(3), 15-24.
- 이정민, 김미리혜, 김정호 (2012).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메타인지와 메타기분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29-242.
- 이종춘, 신성철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8, 33-54.
- 이주연, 전중철 (201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87-303.
- 이준기, 최용용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85-2104.
- 이지숙, 고기숙 (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401-424.
- 이지연, 정은희 (2012). 장애학생의 SNS 이용 실태와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3), 357-385.

- 이효선, 방명애 (2012). 자아존중감 집단중재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위험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171-194.
- 장역방, 방명애 (2014). 중국 스마트폰중독 위험고등학생의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6(3), 207-224.
- 장재홍,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전신현 (2012). 고등학생들의 인터넷사용 및 그 유형과 우울의 관계: 성별 차이의 검증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31, 153-173.
- 정병일, 박희서 (2014).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3), 127-134.
- 정윤태, 박소영, 서용석 (201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4), 227-255.
- 조민자 (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절 변인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8(3), 29-42.
- 주석진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지역적 특성 비교: 서울특별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21-147.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타당도 고도화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함경애, 신지영, 이동훈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모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의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23(2), 19-39.
- Acier, D., & Kern, L. (2011). Problematic internet use: perceptions of addiction counsellors. *Computers & Education*, 56, 983-98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illieux, J., & Van der Linden, M. (2012). Problematic use of the internet and self-regulation: A review of the initial studies. *The Open Addiction Journal*, 5(1), 24-29.
- Brus, A. (2013). A young people's perspective on computer game addiction.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21(5), 365-375.
- Burnay, J., Billieux, J., Blairy, S., & Larøi, F. (2015). Which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Evidence through an integrative mode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28-34.
- Byun, S., Ruffini, C., Mills, J. E., Douglas, A. C., Niang, M., Stepchenkova, S., & Blanton, M. (2009). Internet addiction: metasynthesis of 1996-2006 quantitative research. *CyberPsychology & Behavior*, 12(2), 203-207.

- Dong, G., Lu, Q., Zhou, H., & Zhao, X. (2011). Precursor or sequela: Pathological disorders in people with Internet addiction disorder. *PLoS ONE*, *6*(2), 1–5.
- Du, Y., Jiang, W., & Vance, A. (2010). Longer term effect of randomized, controlled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 students in Shanghai.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4*, 129–134.
- Huang, C. (2010).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si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3), 241–249.
- King, D., Delfabbro, P. H., Griffiths, M. D., & Gradisar, M. (2012).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outpatient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11), 1185–1195.
- Ko, C. H., Yen, J. Y., Yen, C. F., Chen, C. S., & Chen, C. C.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sychiatric disord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opean Psychiatry*, *27*(1), 1–8.
- Kuss, D. J., Griffiths, M. D., Karila, L., & Billieux, J. (2014). Internet addiction: A literature review of epidemiological research for the last decade.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0*(25), 4026–4052.
- Laconi, S., Rodgers, R. F., & Chabrol, H. (2015). Differences between specific and generalized problematic Internet uses according to gender, age, time spent online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8*, 236–244.
- Meerkerk, G. J., van den Eijnden, R. J., Franken, I. H. A., & Garretsen, H. F. L. (2010). Is compulsive internet use related to sensitivity to reward and punishment, and impulsiv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729–735.
- Oktan, V. (2011). The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management skills and interne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9*(10), 1425–1430.
- Ozturk, F. O., Ekinci, M., Ozturk, O., & Canan, F. (2013). The relationship of affective temperament and emotional-behavioral difficulties to internet addiction in Turkish teenagers. *ISRN Psychiatry*, *2013*, 1–6.
- Park, M. H., Park, E. J., Choi, J., Chai, S., Lee, J. H., Lee, C., & Kim, D. J. (2011). Preliminary study of internet addiction and cognitive function in adolescents based on IQ tests. *Psychiatry Research*, *190*(2–3), 275–281.
- Pawłowska, B., Zygo, M., Potembska, E., Kapka-Skrzypczak, L., Dreher, P., & Kędzierski, Z. (2015). Prevalence of internet addiction and risk of developing addiction as exemplified by a group of Polish adolescents from urban and rural areas.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2*(1), 129–136.

- Rizzo, A., Villa, L. D., & Crisi, A. (2015). Can the Problematic Internet Use evolve in a pre-psychotic state? A single case study with the Warteg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1*, 532-538.
- Sim, T., Gentile, D. A., Bricolo, F., Serpelloni, G., & Gulamoydeen, F. (2012). A conceptual review of research on the pathological use of computers, video games, and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0*(5), 1-22.
- Stavropoulos, V., Alexandraki, K., & Motti-Stefanidi, F. (2013). Recognizing internet addiction: Prevalence and relationship to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enrolled in urban and rural Greek high schools. *Journal of Adolescence, 36*(3), 565-576.
- Webber, J. & Plotts, C. A. (2013). **정서행동장애 이론과 실제** (방명애, 이효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Weinstein, A., Dorani, D., Elhadif, R., Bukovza, Y., Yarmulnik, A., & Dannon, P. (2015). Internet addiction is associated with social anxiety in young adults.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27*(1), 4-9.
- Wong, T. Y., Yuen, K. S., & Li, W. O. (2015). A basic need theory approach to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distress. *Frontiers in Psychology, 1562*(5), 1-10.
- Xu, Z., Turel, O., & Yuan, Y. (2012). Online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Motivation and prevention factor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3), 321-340.
- 에이블뉴스 (2015). **장애청소년 인터넷 중독 심각 실태조사는 無**. <http://abnews.kr/18wg>. 2015. 9. 21.

Comparison of Self-Control, Self-Esteem,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between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and Adolescents without Risk

Song, Eun-Hye

Special Education & Language Center

Bang, Myong-Ye

Woosuk University

Hong, Jeom-Suk

Dodam Cognitive Development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lf-control, self-esteem,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and those of adolescents without risk. The participants were 60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ho scored higher than 41 points based on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and 61 adolescents without risk who scored lower than 16 points based on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implemented for data analyses.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control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dolescents without risk. Seco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dolescents without risk. Thir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dolescents without risk. Fourth, the self-control of adolescents at risk for internet addiction was correlated with the self-esteem positively and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negative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sett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self-esteem,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논문 접수: 2015. 12. 05 심사 시작: 2015. 12. 10 게재 확정: 2016. 01. 12